

## 전문가가 보는 농촌교회 건축의 실제

박대응<sup>1)</sup>(집사, 충주 예가건축사사무소 대표)

### 서 언

교회 건축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일이며, 목회자와 성도에게는 일생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가슴 벅찬 일이다. 이 교회 건축 과정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된다면 즐겁고 보람된 축제의 시간이 된다. 그러나 진행이 합리적으로 되지 못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과 같이 연속적으로 잘못되어 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다년간 일한 후 독자적으로 개업하였다. 개업 후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계속적으로 설계해 오고 있다. 교회 건축 설계와 감리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진행과정을 통하여 느낀 점을 정리하여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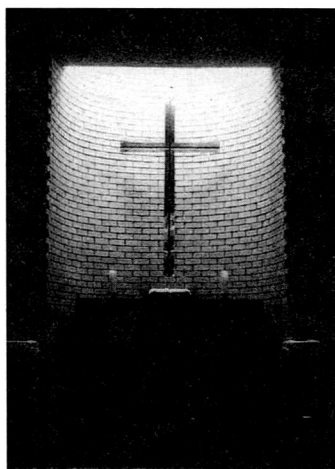
---

1) 필자 박대응 소장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후, 유일 종합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였고, 울산시민교회 외 40여 교회작품을 남겼다.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대한국교회 건축의 지역적 특성 조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예가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 일하고 있다.

건축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참고로 하고자 한다.



충주 안림교회 전경



충주 안림교회 강단

농촌교회 건축이라고 해서 도시교회 건축과 다른 점은 특별히 없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대개 목회자의 성향에 의하여 교회건축의 방향이 결정된다. 한국 교회건축에서 목회자의 건축에 대한 생각은 일반 건축주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미래 지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편견을 갖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교회도 일부 있다. 예를 들면, 2,000-3,000명 정도의 예배인원을 수용하는 대형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지역과 부지에 맞는 독창적인 교회를 건축하여야 하는데 소위 모델교회를 선정해놓고 그대로 설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건축주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설계를 유도한 설계자의 잘못도 있고 그런 설계를 요구하는 한국교회건축의 잘못된 풍토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 들어 교회건축의 새로운 시도와 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설계자의 작품을 살펴보고 대화를 통하여 설계성향이나 건축관을

파악하여 전문가로서의 설계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건축을 하는 길이다.

농촌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소 위축된 가운데 건축을 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회 비전과 미래를 개척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건축에 임하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1. 꿈과 설계도면

필자는 교회설계를 의뢰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많이 나눈 후 설계를 시작한다. 설계하기 전에 지혜를 주셔서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작업에 들어간다. 기본설계를 마치고 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하나님 제가 계획한 이 설계가 교회에 너무 무리가 되는 설계는 아닌지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형편도 크게 좋지 못한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가 건축하느냐 네가 왜 걱정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신다. 착공이 되고 공사가 끝나면 설계도면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아름답게 완공되었다.

설계도면은 꿈이다. 그 꿈이 교회현장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설계도면은 도면 이상의 것이요 우리의 꿈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설계자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교회건축의 꿈을 설계도면에 표현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필자는 대지분석을 철저히 한 후 그리고 교회와 많은 대화를 통하여 교회의 비전, 목회방침, 예산 등 주요한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정성껏 설계하게 되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교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축설계이다. 교회의 비전과 목회방침과 중요한 사항이 도면에 모두 표현되어 있다.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배, 친교,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 기타 수많은 사항들이 나타난다. 설계도면에는 목회의 꿈과 교회의 미래가 구석구석에 맺혀있다. 목회자와 성도는 도면을 보고 꿈꾸는 자가



울산 시민교회 조감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 교회건축의 첫 단추를 잘 채우는 것이다.

## 2. 교회 건축의 진행과정

먼저 교회 내부의 협의를 통해 대지를 구입한다. 부지 매입 전에 건축 설계자를 선정하여 부지의 입지와 잠재력 및 법적 제약 등을 검토 받는 것이 좋다. 이 단계가 기획단계인데 이때 설계자를 참여시켜 기획설계보고를 받고 건축방향을 파악하여 설계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건축주(교회)의 요구사항을 설계자에게 알려주고 설계를 진행하게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설계를 하려고 한다. 필자는 교회로 하여금 요구사항을 깨닫게 하여 요구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면, 교회와 목회자의 주요한 목회방침, 장기 비전, 몇 명 정도 수용의 예배실이 필

요한지 기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지역주민 및 사회를 위한 어떤 목회적 배려사항이 있는지, 단기적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냉난방 등 설비요구사항, 기타 교육을 위한 설비는 무엇인지 등이다. 기본계획설계는 교회와 목회의 중요한 꿈이 반영되고 토지의 이용계획, 건물의 형태와 규모 평면의 구성이 결정된다. 이 기본계획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어떤 교회는 설계계약 없이 “가도면을 개략적으로 그려주세요” 라고 요구한다. 설계에는 가도면이란 용어가 없다. 기본계획도면을 전문성이 결여된 공사업자나 건축주들이 혹 가도면이라 부른다. 필자는 절대로 가도면을 그려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기본계획도면은 설계의 핵심이다. 기본계획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현장을 파악하며 건축주와의 깊은 대화가 있는 후에 스케치에 들어가고 오랜 구상 끝에 기본계획이 완료된다. 이런 중요한 것을 대충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제출하여서 성사된 것은 내실 없는 조악한 설계가 될 수밖에 없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건축허가를 얻고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공사비를 알 수 있는 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의 시공 방침서인 시방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을 실시설계라 한다.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 시공자 선정 또한 중요하다. 예산과 시공자의 수준에 따라 교회건축시공의 수준이 결정된다. 감리는 설계도면에 준하여 공사하는지의 여부와 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현장의 문제점을 시공자와 협의 조정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풀어준다. 현장에서의 모든 문제점을 푸는 열쇠도 설계자와 감리자가 쥐고 있어야 한다. 시공자 임의대로 건축주 임의대로 처리하여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가 끝나면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해야한다. 이 때도 설계자의 도움을 얻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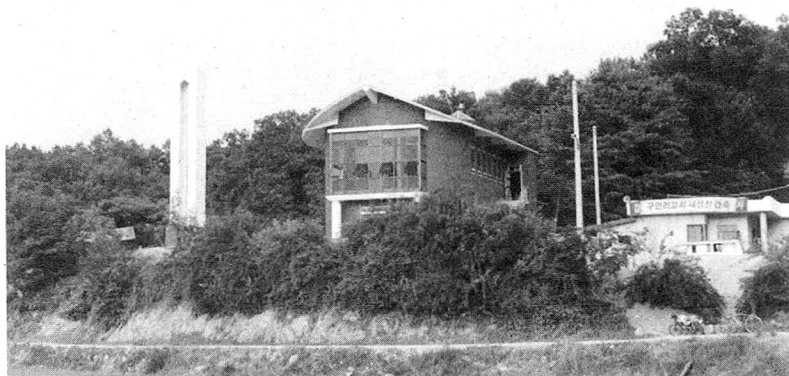
### 3. 설계자의 선정 및 설계, 감리 댓가

교회건축에서 설계의 중요성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다. 설계자에게 작품은 자신의 인격이다. 작품을 보고 설계자의 설계방향을 알 수 있다. 설계한 교회를 방문하여 좀더 친숙하게 느끼고 설계자와 대화를 많이 나눈 후 결정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계자 선정을 현상설계를 통하여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상설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심사자의 수준미달, 설계심사의 불공정, 많은 작품제작을 위한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 보다는 교회건축 작품과 설계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현상설계를 통한 엄청난 물질의 낭비 등을 막을 수 있고, 심도 깊은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교회 건축은 건물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수준의 건축물이다. 기능 면에서 혹은 설비 면에서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여 디자인해야 하는 건물이다. 설계, 감리 댓가의 지급은 공사비의 최소 5%-10%정도이다. 평당 공사비가 200만원이면 평당설계비는 최소 1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때 설계자는 기획 보고서, 기본계획설계 설명서, 스터디 모델, 투시도, 구조계산서, 실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을 제출한다. 허가 및 준공을 위한 대(對) 관청 업무와 감리를 위한 잦은 출장, 재료결정, 변경 등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 적당한 댓가 없이 좋은 결과를 맺기는 어렵다.

#### 4. 건축과정의 총 지휘자는?

전쟁터에서 지휘자는 부대장이다. 장군이 지휘하는 대로 병사는 움직인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연주자를 움직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낸다. 교회건축현장에도 총지휘자가 있어야 한다. 농촌과 중소도시와 같이 작은 교회건축의 현장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시공자나 건축주 직영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설계자가 전체



구만리교회 전경(1994년 건축)

지휘자가 되어 현장, 교회의 형편 등 제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책임자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시공자가 이 권한을 행사하여 교회 건축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수가 종종 있다. 건설관리의 지휘봉은 설계자가 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는 것이 합당하다.

## 5. 교회 입지의 중요성

건축설계를 위해 교회부지 현장에 나가보면 설계자로서 깜짝 놀라며 탄성을 지를 때가 종종 있다. 도시면 도시대로, 농촌이면 농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것을 체험한다. 교회부지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와 접근이 용이한 곳이 좋다. 주차가 용이한 곳, 공용주차장이 있는 곳, 공개공지나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는 곳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도시교회는 교회 부속 주차장 외에 특별한 주차공간이 주변에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교회 건축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입지선정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은 긴 행렬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교회의 입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성경적일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교회중심의 생활이 될 것이다. 농촌에서의 교회의 위치 또한 마을 부근언덕이나 마을 중심에 위치하여 인지도와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 실제로 그런 부지가 많이 있다. 하지만 교회 부지를 찾기 어렵거나 인지가 잘 되어있지 않은 곳도 종종 있다. 이런 교회는 기존 부지를 매각하고 입지가 좋은 곳을 새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6. 건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가?

교회를 건축할 때는 대개 건축위원회가 구성된다. 건축위원회는 부지매입, 설계자 선정, 시공자 선정 등의 일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결정된 후 전문가의 영역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외벽의 재료를 화강석으로 할 것인지 벽돌로 할 것인지, 성가



매류감리교회 신축 조감도



대의 위치를 어느 쪽에 할 것인지, 타일의 색상은 어떤 색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은 설계자에게 일임하여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자, 감리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중요방침의 결정, 교회건축을 잘 진행하기 위한 기도, 건축재정의 준비를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하겠다.

## 7. 원칙론

건축설계도면은 건축현장의 법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좋다. 교회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 밖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 특히 비전문가가 건축에 관여할 경우이다. 예를 들면, 중소규모 교회건축에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교회건축시공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건축과 시공 개념은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설계를 보고 구조의 과설계 운운하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한다는 등으로 건축주를 혼돈스럽게 한다. 또는 외부마감을 노출콘크리트로 어렵게 공사를 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설계자와 상의 없이 미장을 하기도 한다. 시공자가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면 시공자의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다. 이런 시공자는 기본계획평면 구성까지 뒤틀어 놓으려고 한다. 시공자는 도면에 의한 시공만을 하여야 하며 건축주도 이 원칙에 준하여 따라야 한다. 건축 중에 뭔가 변경하고자 하면 설계자와 상의하여 설계자가 검토 후 설계자의 지침에 따라야 하겠다.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건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예를 들면 부지 현장조사시에 이 대지 일부분에 옹벽이나 석축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건물에 위험이 있을 것이 예상되면 반드시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건축주나 시공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 이런 구조물을 부실하게 하려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또한 외부계단을 화강석 물갈기

로 처리해 놓을 경우 가을에 서리가 오면 새벽기도를 위해 교회 출입을 하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외부계단 마감을 화강석 버너마감 등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 교회 건축에서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지반을 예상하고 기초설계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터파기를 했을 때 지반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반드시 지질조사를 하고 기초를 변경하여야 한다. 시공자 임의대로 따르면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부동침하나 기초부분이 조금 잘못되면 구조크랙이 발생하여 지붕방수 손상 외벽누수 등의 벽체크랙 또한 발생된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 사람은 설계, 감리자이다. 설계, 감리자의 지침으로 모든 현장의 문제를 풀어 가면 좋은 교회건축을 할 수 있다.

## 8. 한국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교회건축의 시도<sup>2)</sup>

한국에 서양문물이 유입된 이후 건축 미학과 모델은 선진국 일변도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교회 또한 서양의 로마네스크, 고딕양식을 주로 하거나 절충양식을 많이 취하였다. 지금도 이 양식을 기초로 한 건물 형태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1세기인 지금도 뽀족탑 형태의 대형교회가 서울 부근의 신도시와 농촌에서 우뚝 우뚝 솟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한국의 자연과 지역적인 기후, 풍토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한국의 전통과도 단절된 건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체성이 표현된 교회건축을 시도하여야 하겠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좀더 깊이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할 과제로 생각한다.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시도이어야 하겠다. 세계의 지역

2) 박대용, 『현대 한국교회 건축의 지역적 특성조사』 2002, 석사학위논문 1쪽 서론에서 발췌.



충주 능암감리교회 전경(2001년 신축)

성이 반영된 지역주의 건축을 연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지역주의 건축디자인 요소 다섯 가지를 찾게 된다. 즉, 자연환경, 토착건축환경, 기능적 측면, 기술경제수준, 지역의 전통과 유산 등이다. 자연환경인 기후, 지형, 자연적 환경, 지리적 환경이 지역주의 건축디자인 요소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 토착건축환경을 적용할 경우 토착건축언어를 직설적으로 채택하여 적용하게 되면 현대적인 상황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건축설계를 하는 우리는 토착건축언어를 모더니즘의 미학과 결합하여 시대에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시도를 하여야 하겠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적합한 환경 또는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기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인의 경제적 수준과 기술적 수준에 맞는 구조와 소재를 결정하여야 하겠다. 지역의 전통과 유산의 디자인 요소는 지역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시대별 건축역사에 대한 해박한 연구와 현대건축문화 상황에 대한 비판과 대응으로 지역성을 표출하여야 하겠다. 이 디자인 요소를 한국교회건축에

반영하고 교회고유의 기능인 예배, 교제, 선교, 교육에 대한 기능을 적절히 계획하며 기타 설비기능 등의 열악한 교회 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을 고려하고 교회건축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특정장소, 신의 집에서 교회공동체를 위한 건축의 개념으로 계획하면 한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회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9. 교회 실내 인테리어에 관하여

문화수준이 향상에 따라 건축 실내 분위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실내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고 있다. 교회 건축시에도 인테리어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때 인테리어 도면을 설계할 때 미리 작성하여 공사에 반영하면 건축공사마감을 하고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할 경우보다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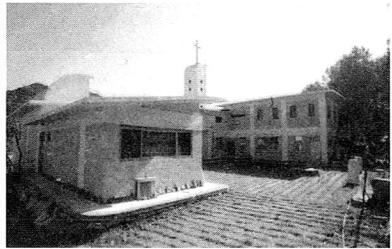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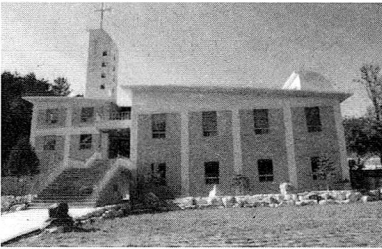
인테리어에 대한 개념은 과장된 장식을 피하고 예배자의 마음을 단순화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 또한 건축음향, 조명 등에 신경 써야 한다. 상업적 분위기가 나는 인테리어는 지양해야 한다. 기타 공간들은 기능에 맞게 저비용으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여야 한다. 비싼 재료만이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페인트의 색상조절이나 마감의 색상 등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과 약간의 장치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설계자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

## 결 론

현장에서 겪은 많은 일들을 글로 다 쓰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설계자로서 감리자로서 건설관리자로서 크게 느낀 점만을 기술하였다. 설계자의 중요성, 교회건축 진행과정의 합리성, 합리적인 설계 및 감리 댓가의 지급, 설계자의 선정방법, 건축과정의 총지휘자, 교회 입지의 중요성, 건축위원회의 역할, 원칙론, 한국의 지역적 특성

이 반영된 교회건축의 시도, 인테리어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외시켰다. 이것은 설계, 감리, 시공자의 전문분야이므로 이들이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위의 몇 가지 사항만 잘 지키면 성공적인 교회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회의 협력을 위한 건축적 모색 등은 우리들이 심도깊게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자립 교회가 교회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은총교회 전경



여주 상록교회 전경



진천교회 전경